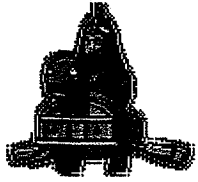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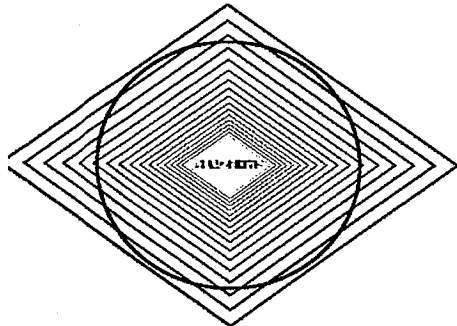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순신을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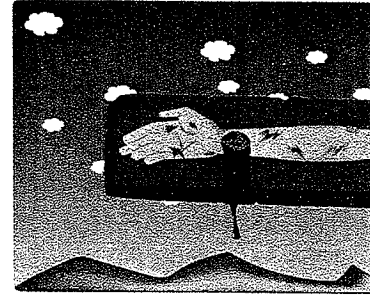
1.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2.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서른 둘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3.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장교로 들었다.
4.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5.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 받았다.
6.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 일곱에 제독이 되었다.
7.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 싸워 스물세 번 이겼다.
8.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9.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 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열두 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10.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스무 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11.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어떻게 보이나요? ▶
마름모 꼴 안에 있는 원은 찌그러진 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밑에서 보면 완벽하게 둥근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찌그러져 보이는 것은 주변의 선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내게 잘못 알려준 선입관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찌그러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기는 삶을 사는 자는 찌그러진 모습으로 남을 보지 않습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
| 제6권 40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5년 9월 25일 |
|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 | |

“란덴스브루크 집단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한 유대인 여성이 남긴 기도문”



주님,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한 고통만 기억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 고통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맺은 열매인
우리의 동료애
충성심
겸손
용기
관용...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넓은 마음도 기억하십시오.

저들을 심판대에 올리셨을 때
우리가 수고로 맺은 이 열매들로 인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따라 행하기▶
밤 하늘의
별을 세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세어 보라

◀인품따라 행하기▶
남의 잘못은
한 눈을 감자.
잘함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뜨자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 | |
|---------------------------------|---|----------|
| 영광송 Gloria | Calvary | 다 같이 |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 | |
| 응서의 선언 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 인도자 |
| *찬송 Hymn | 34장 | 다 같이 |
|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 45 (요 3장) |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
|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 | |
| 찬송 Hymn | 197장 | |
| 기도 Pray | | 지찬영 권사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마태복음 5:5 | 인도자 |
| 성가대 찬양 Choir | | 나무십자가성가대 |
| 설교 Sermon | 은유한 자 | 김성국 목사 |
| 찬송 Hymn | 211장 | 다 같이 |
| 헌금 기도 Offering Pray | | 인도자 |
| 응답송 Response Song | '이 믿음 더욱 굳세라' | 다 같이 |
| 축도 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 10월의 예배위원◆

◆10월의 교회력◆

| 일자 | 기도 | 헌금위원 | 가족찬송 | 안내 |
|----|-----|------|----------|----------|
| 25 | 지찬영 | 박제란 | | <현관> 김중건 |
| 2 | 최재학 | 박영태 | 조재근, 방명아 | 이광희 |
| 9 | 현석호 | 박재양 | 송의수, 이성희 | |
| 16 | 김교섭 | 박정자 | 김홍구, 윤경례 | <본당> 노은숙 |
| 23 | 김순자 | 박태원 | 김용석, 최신덕 | 정희자 |
| 30 | 김영길 | 박하림 | 김상덕, 박제란 | |

| 주 일 | 예배와 모임 |
|-----|------------------------|
| 2 | 이웃교회참석수요예배(5) 구역예배(7일) |
| 9 | 믿음의어머니기도회(11) |
| 16 | |
| 23 | |
| 30 |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

| | |
|---------------------------|---------------------------------|
| 2005년 교회생활 |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 |
|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 |
|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 수요예배: 7:30 pm |
| 새벽기도회: 금 5:55 | 청년부: 토 저녁 2시 |

1. 교우소식
<축하> 김영길 집사, 고국의 "2005년 전국체전 해외동포 경기"를 위한 뉴질랜드 테니스 대표 선발전에서 단식우승, 뉴질랜드 대표로 출전.
2. 정기확대당회: 예배 후 모임(유아실)
3. 다음주일에 Daylight Saving Time 잊지마세요
*토요일에 밤 8시를 9시로 미리 바꾸어 놓으세요. 구역장께서는 토요일 밤에 구역식구들께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이번 여름에는 또 어떤 햇빛이 우리에게 싱그런 추억을 남겨 줄런지요...
4. 오늘 오후에 주님의교회와 족구경기를 갖습니다.
<시간> 오후 2:30분- 5시 30분 <장소> YMCA Stadium(City)
<구성 및 담당> 30대(최현철 집사), 40대(이재영 집사), 50대(박일영 집사) 이상 각 한팀 <진행> 박성천 목사
5. 성경공부반 개설 <과목> 초신자를 위한 "기초신앙반"
<담당> 이태한 목사 <일정> 8회 <신청> 신청용지 사용(헌금함)
*처음 믿어 신앙과 교회생활의 기초를 갖추기 위한 성경공부입니다. 기대감으로 신청하시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 유아부예배: 오늘부터 교회당 유아실에서 드립니다.
7. Hall 공사관계로 화장실 출입구가 임시 변경되었습니다(안내표시)

◀착한 시인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서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싶다
.....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싶다

생존을 위해 먹는다는 것은 서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먹는 것에 사랑이 스며있고 거기다 아련한 그리움마저 깃들여 있다면 먹는 것은 행복입니다.

좋은 사람과 먹는 행복함, 좋아하고픈 사람과 먹는 기대감, 좋아하기위해 먹는 어색함, 이 모두 한 마음으로 묶여 지고 싶은 한술밥입니다.

오랜만에 말갭게 씻어 잘게 썰은 김치로 국수를 대접받던 며칠전의 식탁에서 가슴이 매어졌습니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던 그리운 날의 그림들이 국수발과 함께 내 온 몸 안으로 들어온 날이었습니다.